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5년 1월 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7%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3.5% 감소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4%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4.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2025년 1월 소비는 전월대비 0.6%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하였음(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6%)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4.2%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4.3%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46.3% 감소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3				2024				2024	2024	2025
		2022	2023	2024p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 산업	4.7	1.1	1.5	0.1	0.9	1.2	0.4	0.4	0.0	-0.4	0.4	0.2	1.7(0.6)	-2.7(-3.5)
	광공업	1.0	-2.6	4.1	0.6	2.8	1.4	1.8	-0.8	1.8	-0.5	1.5	-2.2	3.9(4.4)	-2.3(-4.1)
	제조업	1.0	-2.6	4.2	0.6	3.0	1.4	1.9	-0.8	1.8	-0.8	2.1	-2.1	4.0(4.9)	-2.4(-4.2)
	건설업	2.6	7.8	-4.7	3.4	-0.4	1.9	-4.2	7.7	-8.2	-3.8	-5.1	21.8	-1.9(-7.4)	-4.3(-27.3)
	서비스업	7.0	3.4	1.0	0.7	0.5	1.0	0.3	0.3	0.0	-0.3	0.6	-0.4	1.1(0.3)	-0.8(-0.9)
소비	소비재 판매	-0.3	-1.3	-2.1	-0.7	0.4	-1.3	0.8	-2.2	-0.3	0.7	-0.5	-0.2	0.2(-2.5)	-0.6(0.0)
투자	설비투자	2.6	-4.8	3.0	-9.0	1.5	-3.8	3.5	-1.5	-1.4	10.2	-1.7	-5.9	7.5(10.5)	-14.2(-3.1)
물가		5.1	3.6	2.3	1.1	0.6	1.0	0.7	0.7	0.3	0.4	0.2	0.5	0.7(2.2)	0.3(2.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4년 2월, 2025년 1월, 2025년 2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 202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1%), 주택·수도·전기·연료(0.5%), 교통(0.5%), 음식·숙박(0.2%), 의류·신발(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교육(0.1%), 기타 상품·서비스(0.1%), 주류·담배(0.1%)는 상승, 보건, 통신은 변동 없고, 오락·문화(-0.7%)는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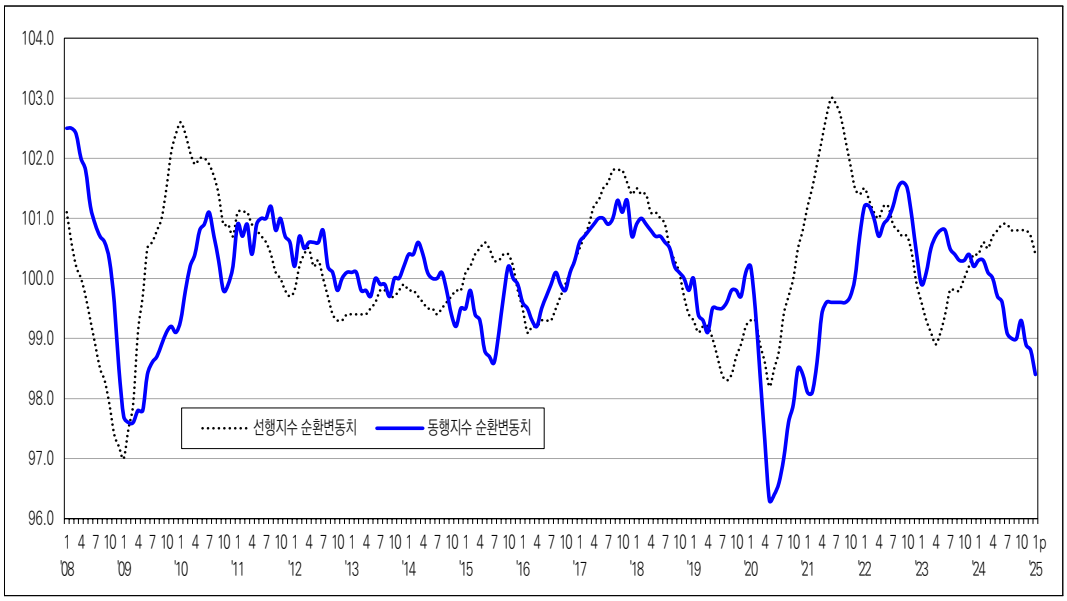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음.

◈ 2025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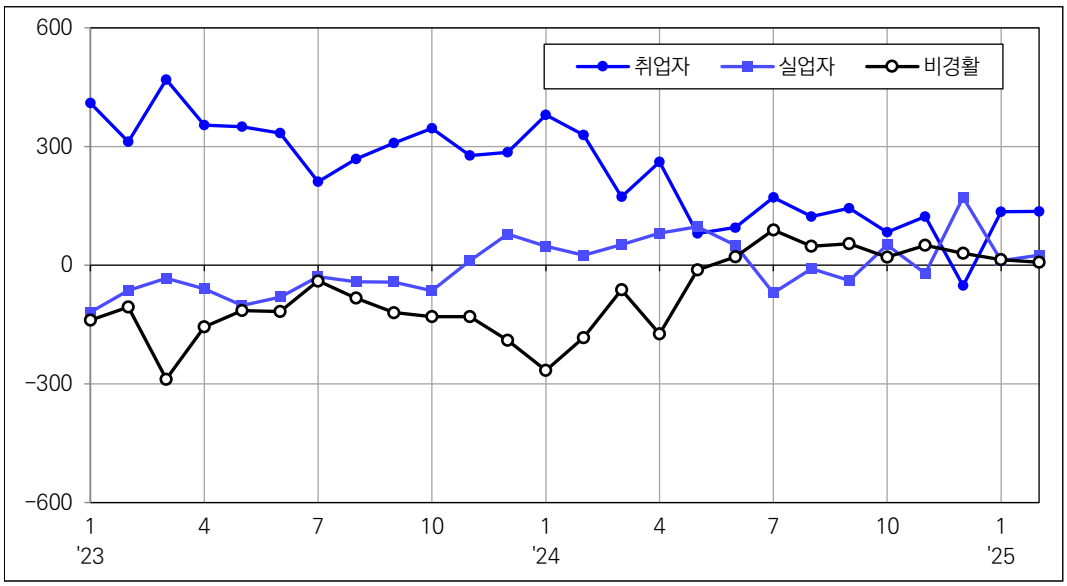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유지,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 2025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 명 증가(전월대비[1] 7만 명 증가)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제조업 ·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됐고, 건설업은 감소폭을 유지함.
- (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보건복지 및 숙박음식은 증가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업은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사업관리지원은 감소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만 5천 명 증가(전월대비 4만 9천 명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7천 명 증가(전월대비 1천 명 감소)함.
- (확장실업률)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8.5%로 전월대비 0.3%p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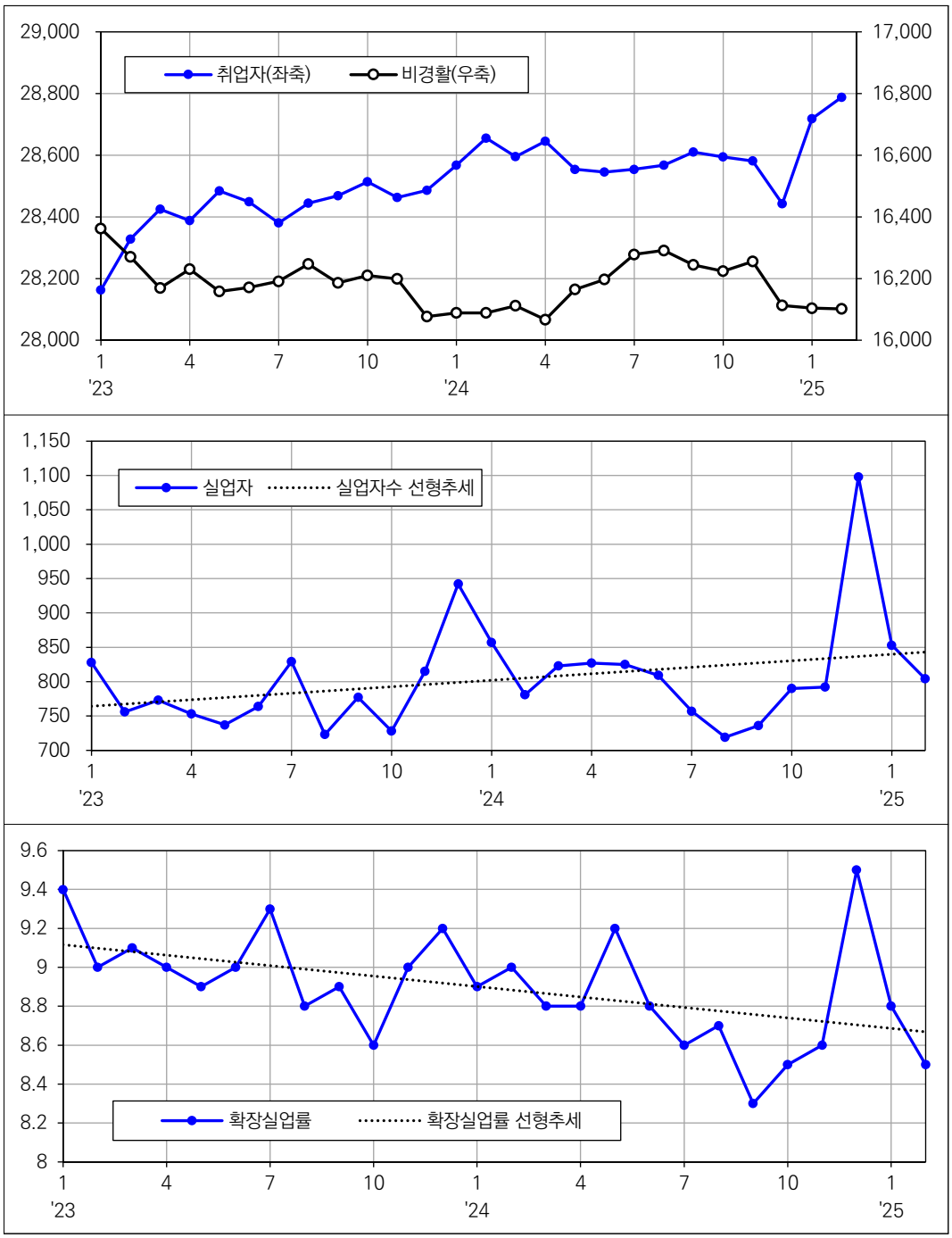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상), 실업자 수(중) 및 확장실업률(하)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30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20대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도소매업에서 증가로 전환됐지만,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 제조업 및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30대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 및 예술·스포츠·여가에서 증가로 전환됨.
- 실업자는 20대, 40대 및 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5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23	-13	-7	(2)	-194	-205	-228	(-43)	96	98	116	(20)
실업자	-3	-5	-9	(1)	5	-11	15	(4)	-21	-11	-15	(3)
비경활	5	8	10	(-2)	-40	6	5	(23)	-31	-45	-52	(-14)
실업률	-1.2	-2.5	-5.2	(0.4)	0.4	0.1	0.8	(0.2)	-0.4	-0.2	-0.3	(0.1)
고용률	-0.9	-0.6	-0.3	(0.1)	-1.0	-1.3	-1.8	(-0.6)	0.9	0.9	1.1	(0.2)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97	-71	-78	(-22)	4	-14	-8	(18)	162	340	342	(-104)
실업자	4	-9	8	(8)	9	-8	1	(8)	177	55	26	(9)
비경활	-59	-77	-84	(2)	12	32	6	(-29)	143	91	123	(138)
실업률	0.1	-0.2	0.2	(0.2)	0.2	-0.1	0.0	(0.1)	2.3	0.4	0.2	(0.2)
고용률	0.3	0.6	0.6	(-0.2)	-0.2	-0.3	-0.1	(0.2)	-0.3	1.0	0.9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및 협회·단체·수리·기타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 농림어업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 전월대비 취업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및 협회·단체·수리·기타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건설업 등에서 감소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25	7	-19	27	-9	-46
광업	4	5	3	3	-1	0
제조업	-97	-56	-74	-4	13	-9
전기 · 가스 · 증기	-4	-2	-9	-1	6	-2
수도 · 원료재생	2	3	7	7	-1	6
건설업	-157	-169	-167	-40	-16	-10
도매 및 소매업	-96	-91	-65	-11	8	19
운수 및 창고업	19	-4	-8	-27	-11	2
숙박 및 음식점업	12	27	56	-3	1	31
정보통신업	52	81	65	2	22	17
금융 및 보험업	31	31	29	3	2	2
부동산업	11	-4	-5	3	-14	0
전문 · 과학 · 기술	107	98	80	37	9	-8
사업시설관리지원	-58	-29	-74	-8	1	-13
공공행정 · 사회보장	3	33	38	-23	65	16
교육서비스업	66	63	34	-15	1	-30
보건 및 사회복지	-3	119	192	-140	180	154
예술 · 스포츠 · 여가	17	5	9	7	15	-20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0	6	32	-10	9	15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17	15	17	4	-3	-1
국제 및 외국기관	-5	-5	-5	0	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2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및 협회단체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에서는 감소로 전환됐고, 교육서비스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임시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사업관리지원,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숙박음식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용직은 숙박음식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자영자는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예술 · 스포츠 · 여가 및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상용직	187	224	233	28	14	42
임시직	-86	72	36	-212	209	137
일용직	-150	-116	-92	-31	-8	-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	-21	-26	17	-13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12	-7	13	-13	-15	-6
무급가족종사자	-10	-18	-27	3	7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7	5	6	-1	-5	-3	3	0	4	-1	3	6	-8	-17	-38
제조업	-40	5	-30	-40	-56	-71	-22	-15	-15	5	0	7	4	7	21
건설업	-77	-101	-80	-14	-10	-21	-63	-56	-55	12	7	6	-12	-5	-14
도소매	-10	-48	-48	20	27	41	-16	-1	-4	-34	-28	-28	-43	-30	-15
운수창고	28	25	27	8	5	0	8	3	-1	-10	-10	-10	-13	-25	-20
숙박음식	28	47	72	35	40	10	-41	-35	-7	-4	-7	-2	8	2	2
정보통신	53	75	66	-15	-11	-10	-1	0	-1	3	2	0	9	16	10
금융보험	34	35	32	-1	-2	0	0	0	0	-2	-2	-2	-1	-1	-2
부동산	8	10	15	-8	-11	-10	1	-4	-2	1	4	-1	15	2	-2
전문과학기술	71	68	54	5	8	7	-3	1	-2	6	-7	-5	27	26	24
사업관리지원	-38	-14	-24	0	-2	-33	-20	-14	-19	-3	-1	-10	2	3	10
공공행정	44	26	29	-41	7	10	0	1	-1	0	0	0	0	0	0
교육서비스	42	30	12	1	9	6	-4	-4	-6	4	4	6	21	24	21
보건복지	39	56	95	-34	80	113	-6	-7	-8	-4	-6	-6	1	-4	-2
예술스포츠	16	8	1	-24	-14	-11	8	6	4	8	6	5	9	-1	13
협회단체	-6	9	22	3	-13	-7	3	4	11	13	13	8	-11	-6	1
가구 내 고용	0	-1	-3	19	15	13	1	4	8	0	0	0	-2	-3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 · 비경활) 2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로 15~29세는 증가로 전환된 반면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됨.

– 업종별로 숙박음식은 증가로 전환됐고, 건설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통학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육아 · 가사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성은 통학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표 5〉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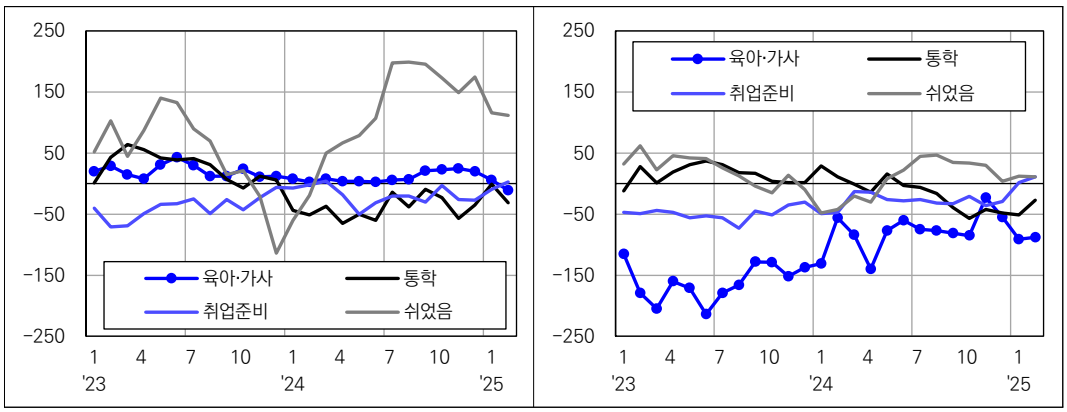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7	26	-8	23	-19	-24	-15	-3	-6	-1	55	32
농림어업	8	1	1	0	2	2	1	0	0	-1	3	0
제조업	-23	-13	5	-1	-3	-6	-14	2	-7	-4	-4	-3
건설업	22	14	1	-2	-1	-3	3	-1	6	12	14	7
도매 및 소매업	-8	4	0	7	-11	-6	3	6	-1	-1	1	-1
운수 및 창고업	0	-3	2	5	4	1	-3	-5	-4	-4	2	0
숙박 및 음식점업	-20	9	-6	12	-6	-4	-7	-4	-2	0	1	4
정보통신업	0	9	6	4	-6	-1	-1	3	-1	1	1	2
금융 및 보험업	5	6	0	3	1	-1	1	2	2	2	1	1
전문 · 과학 · 기술	24	17	9	7	8	4	7	5	-1	-1	1	3
사업시설관리지원	17	17	6	9	10	5	1	1	8	7	-9	-4
공공행정 · 사회보장	8	-5	-1	-3	-3	-3	3	2	-2	-5	11	3
교육서비스업	-7	-5	-5	4	-4	-4	-2	-3	4	0	-1	-2
보건 및 사회복지	1	-6	-15	-10	-5	-5	-4	-4	-5	-6	30	20
예술 · 스포츠 · 여가	-2	-3	-6	-3	-3	-5	-1	0	2	0	4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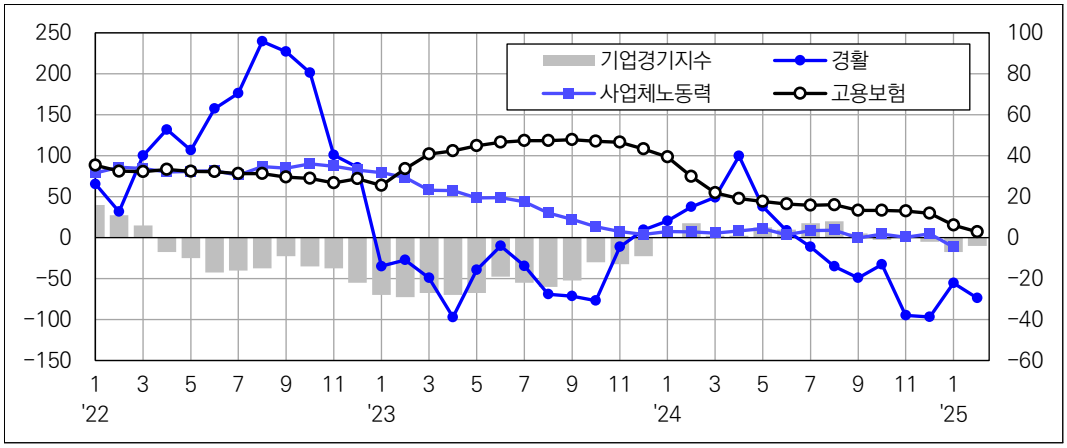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

○ 2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9천 명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됐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감소로 전환됨.
- 기업경기지수는 76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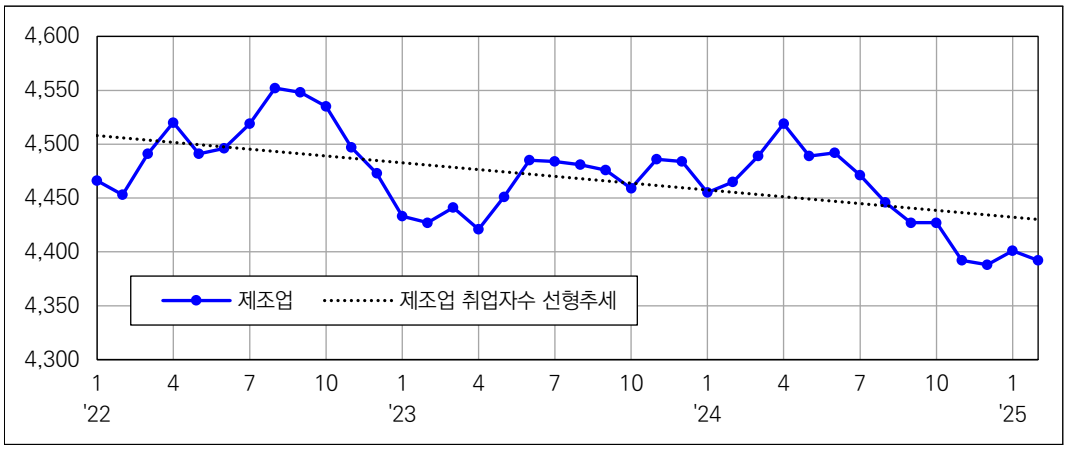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5]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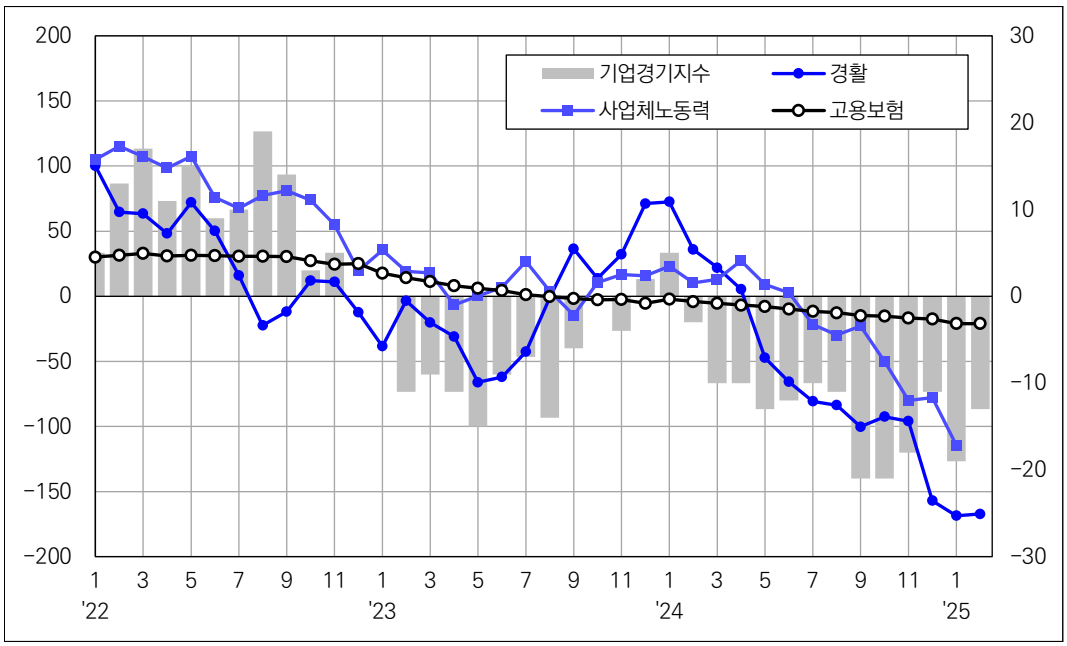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을 유지함.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
- 기업경기지수 감소폭은 축소됨.

[그림 6]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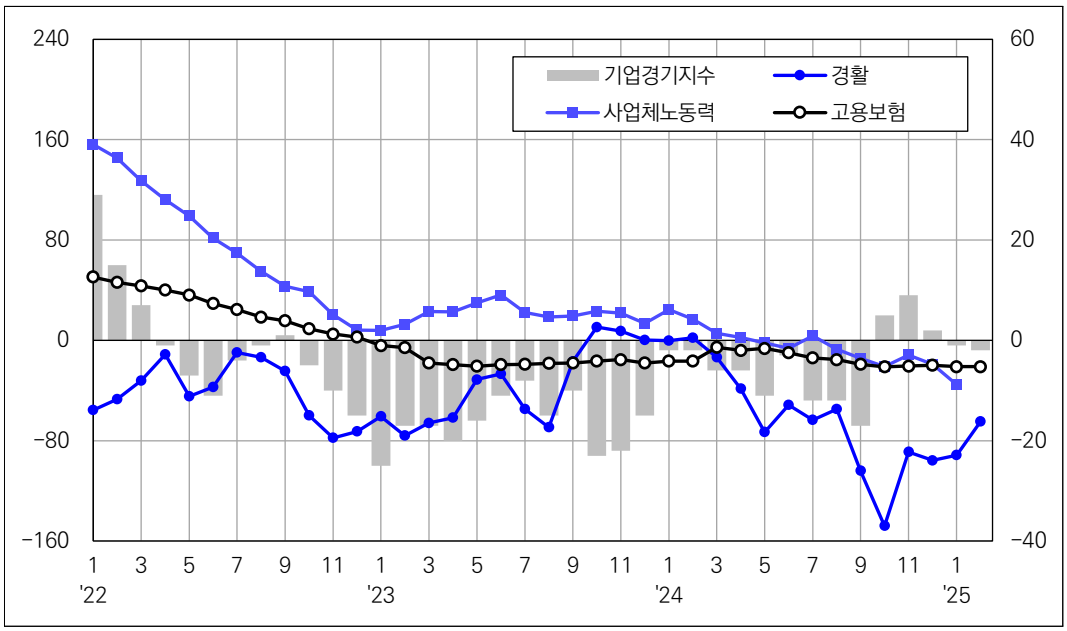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도소매)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폭은 확대됨.
- (숙박음식)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폭도 축소된 반면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축소됐고 생산지수도 감소폭을 유지함.
- (사업관리지원)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도 축소됨. 반면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확대됨.
- (교육서비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그 외 고용 통계는 증가폭을 유지함. 생산지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 (보건복지) 취업자 수 및 피보험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생산지수도 증가폭도 확대됨.

[그림 7]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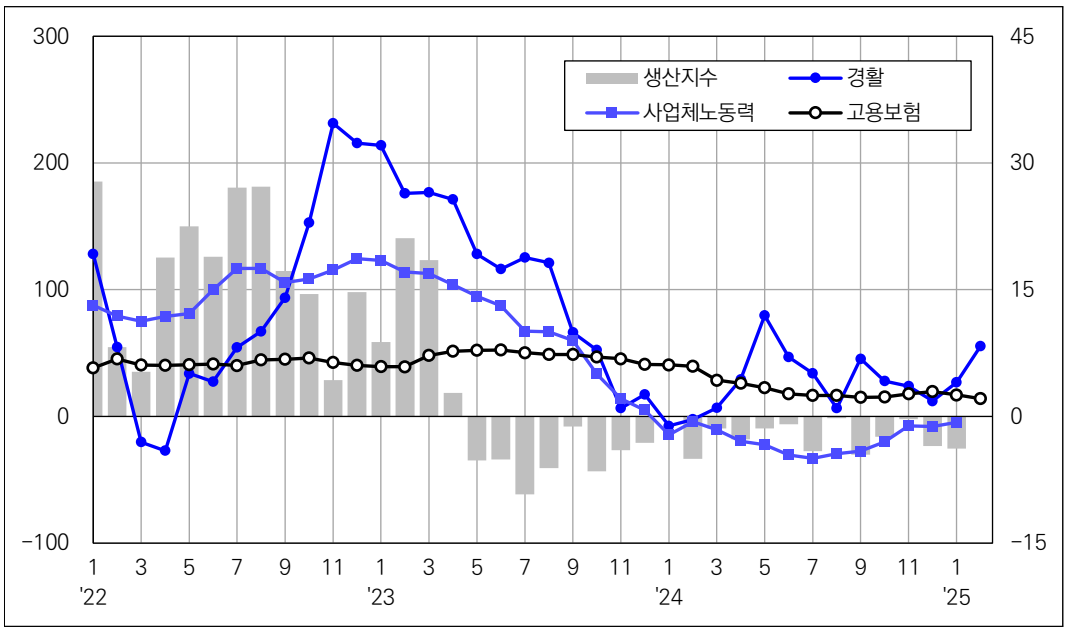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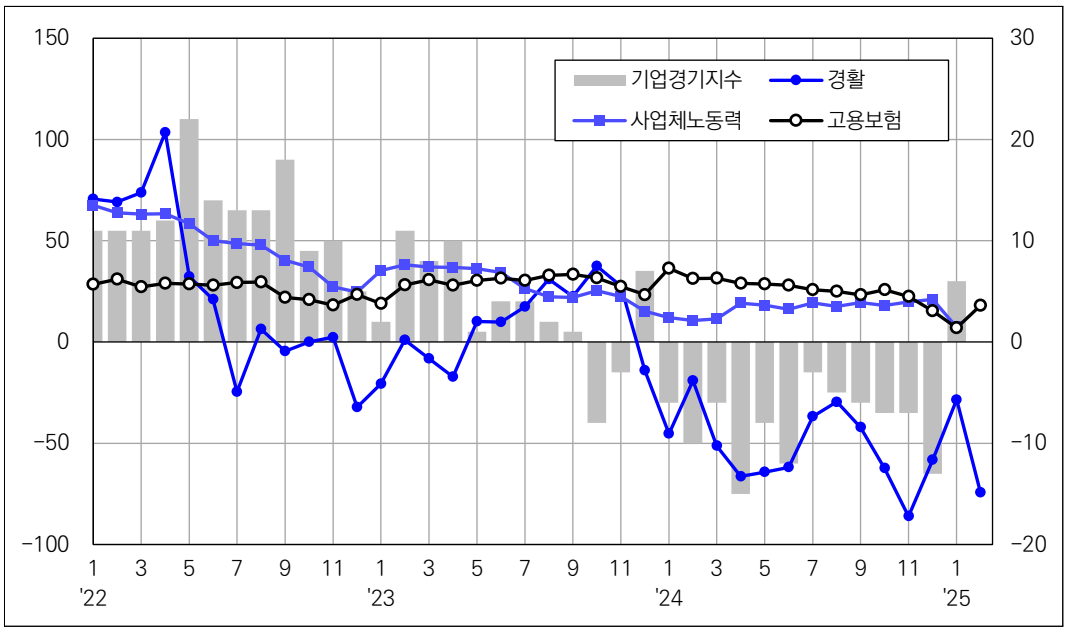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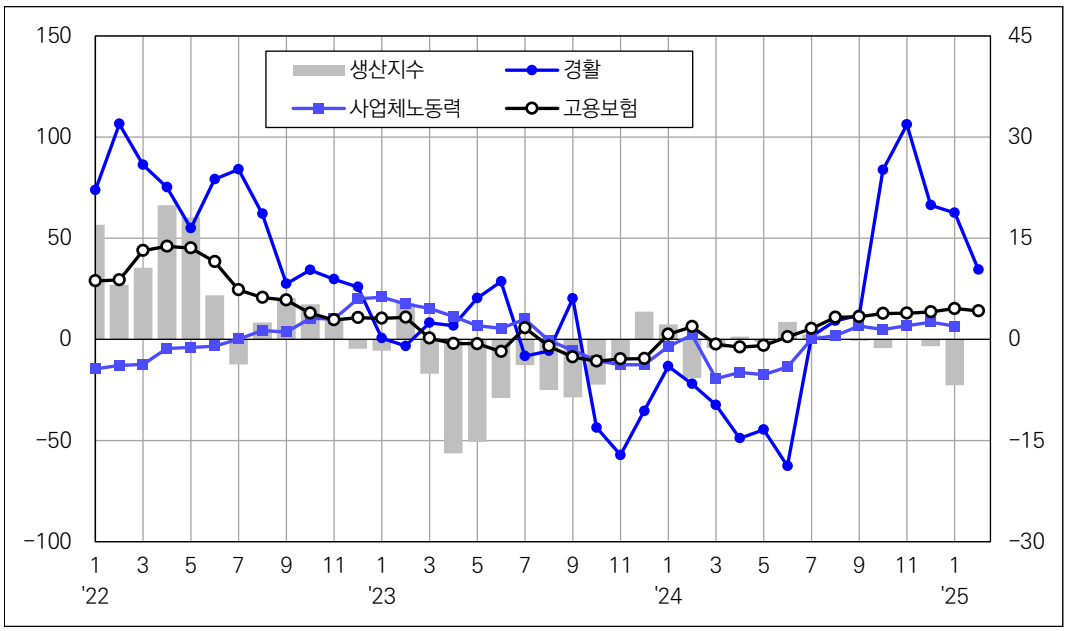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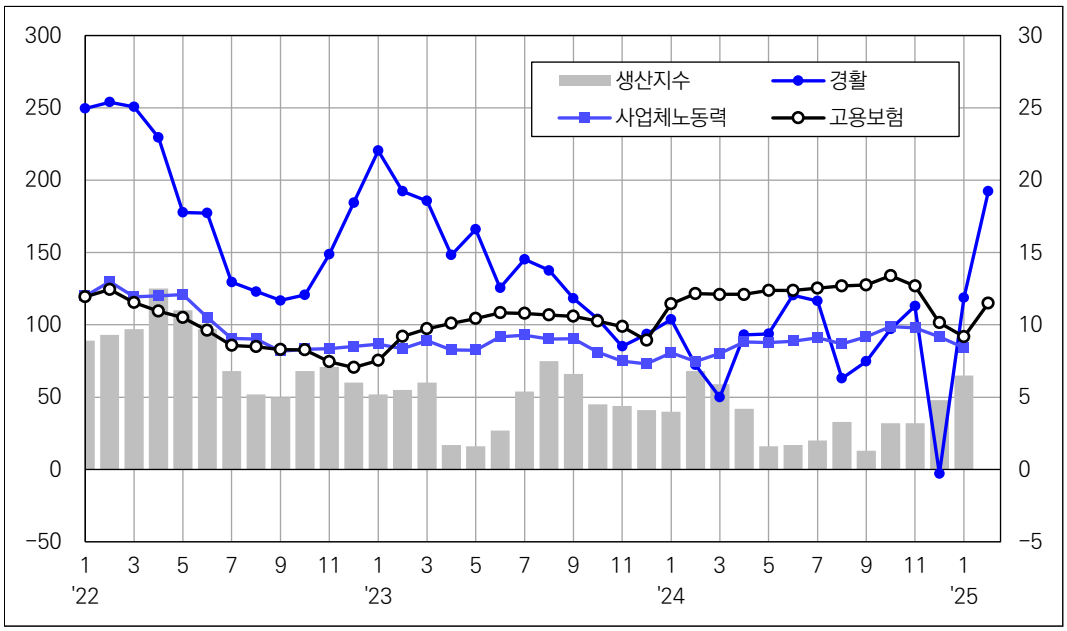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 2024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60만 8천 원(4.0% 상승)이었음.

- 2024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임금(491만 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178만 4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임금증가폭 확대는 2023년 12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10.8%)한 데 기인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6.5%), 광업(38.5%), 제조업(2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8%) 등이었고, 이들 산업 모두 전년동월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였음.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11.3%), 운수 및 창고업(-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8%)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하였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데는 이들의 근로시간 감소와 더불어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축소로 인한 구성효과에도 기인함.

◈ 2024년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2.9% 증가

○ 2024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7만 9천 원(2.9% 상승)이었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433만 8천 원(3.0% 상승)으로 전년대비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80만 9천 원(1.4% 상승)으로 임금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데는 특별급여가 플러스(+) 전환된 영향이 컸으며,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2%), 운수 및 창고업(4.1%), 정보통신업(4.0%) 순이었으며 이들 모두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 컸음.
-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 둔화는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5.0%p)과 부동산업(-9.8%p)에 종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 컸음.

◈ 2024년 1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플러스(+) 전환

– 2022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실질임금은 2024년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음.

◈ 2024년 12월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

○ 임금총액 기준 전년동평균대비 0.6%p 둔화하였음. 민간부문(3.7%)은 0.7%p 둔화한 가운데 공공부문(2.8%)은 0.4%p 상승하였음.

※ 협약임금인상률 :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 인상률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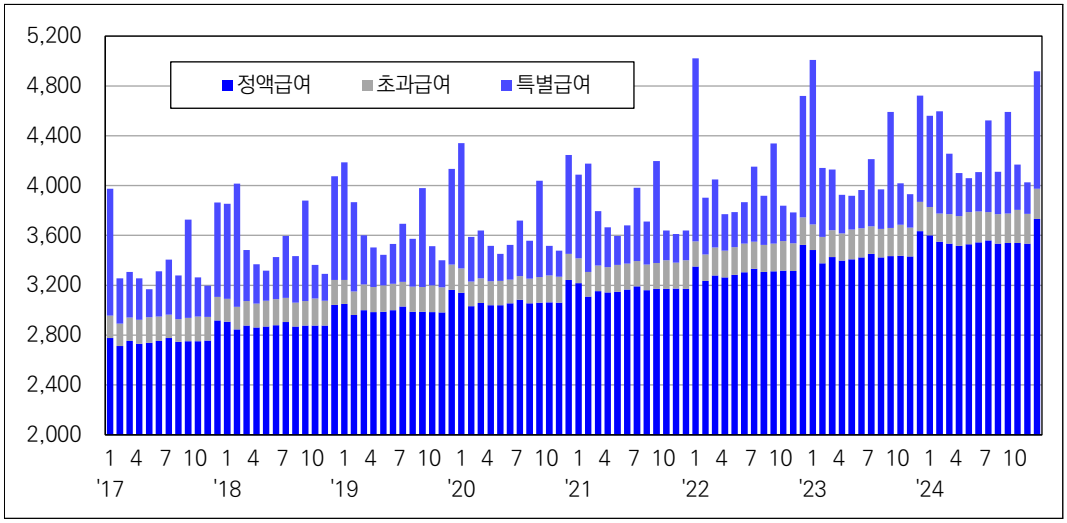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 12월	2024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4,433 (0.0)	4,608 (4.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338 (3.0)	4,722 (0.1)	4,918 (4.2)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555 (3.2)	3,636 (3.2)	3,733 (2.7)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40 (5.8)	234 (5.4)	240 (2.7)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542 (0.4)	853 (-12.4)	945 (10.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809 (1.4)	1,868 (3.8)	1,784 (-4.4)
소비자물가지수		100.0 (0.5)	102.5 (2.5)	107.7 (5.1)	111.6 (3.6)	114.2 (2.3)	112.7 (3.2)	114.9 (1.9)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1.1	0.5	-3.1	1.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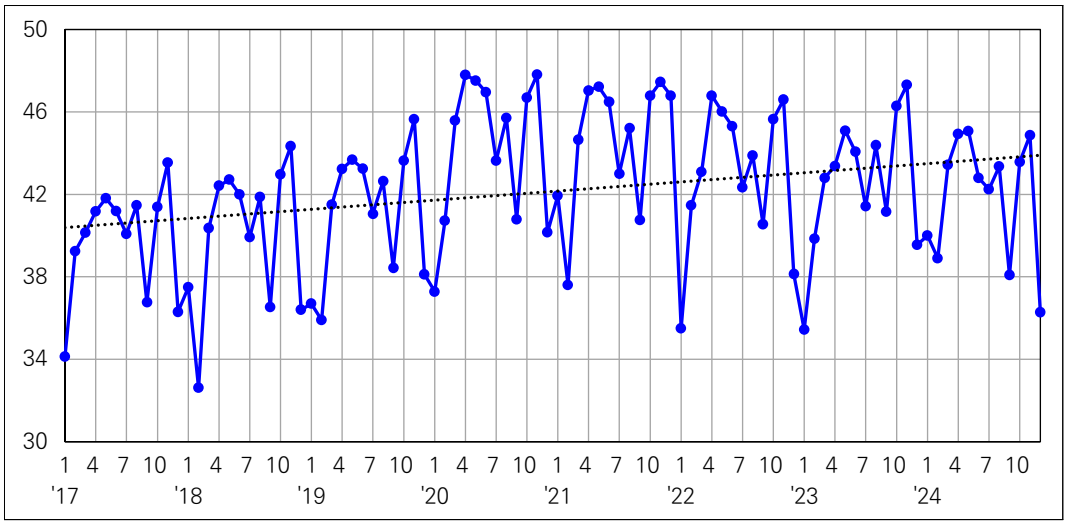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2월 중소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증가폭 확대

○ 2024년 12월 중소규모(상용근로자 1~299인, 405만 1천 원) 사업체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731만 8천 원)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9%, 6.7%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중소·대규모 사업체 각각 전년동월대비 3.2%, 6.6% 증가하였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5.3%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5.1% 증가하였음.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월 감소에 따른 기저 영향을 넘어선 증가폭(29.8%p)을 보인 데 기인함.
-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6.7%), 제조업(33.3%), 금융 및 보험업(22.8%) 등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30.3%)은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였음.

◈ 2024년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3.0%, 2.5% 증가

○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3.2%, 2.4%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각각 1.2%, 2.9%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중소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특별급여는 플러스(+)로 전환된 영향으로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어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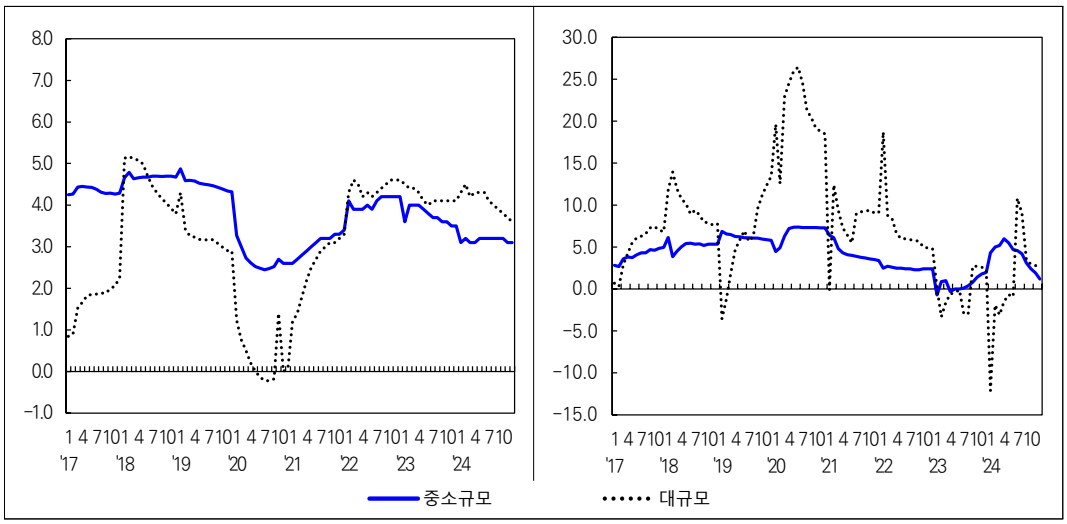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22	2023	2024	2023 12월	2024 12월
중소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479 (3.0)	3,938 (0.2)	4,051 (2.9)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201 (3.2)	4,210 (0.3)	4,343 (3.2)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663 (3.1)	3,392 (2.9)	3,479 (2.6)
	초과급여	186 (5.7)	187 (0.8)	1,731 (5.6)	195 (2.7)	201 (3.1)
	특별급여	350 (8.7)	331 (-5.3)	7,318 (2.6)	624 (-12.7)	663 (6.4)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7,498 (1.2)	1,828 (4.1)	1,731 (-5.3)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4,873 (2.5)	6,860 (-1.1)	7,318 (6.7)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418 (2.4)	7,031 (-1.0)	7,498 (6.6)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2,207 (3.6)	4,734 (3.6)	4,873 (2.9)
	초과급여	377 (5.5)	406 (7.6)	2,583 (6.1)	411 (11.2)	418 (1.6)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3,642 (-2.0)	1,885 (-12.8)	2,207 (17.0)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3,887 (2.9)	2,459 (-0.5)	2,583 (5.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2월 숙박 및 음식점업(-0.3%)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

○ 2024년 12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 광업(8.5%), 제조업(6.7%) 순이었음.

- 이들 산업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이며,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10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2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78만 1천 원), 금융 및 보험업(934만 6천 원)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7만 8천 원)이었음.

◈ 2024년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임금 증가

○ 2024년 전년대비 임금증가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9%)이었고, 임금증가폭이 가장 적었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4%)이었음.

- 제조업의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의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폭의 확대 영향으로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쳤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22	2023	2024	2023	2024
				12월	12월
전 산업	3,869 (4.9)	3,966 (2.5)	4,079 (2.9)	4,433 (0.0)	4,608 (4.0)
광업	4,608 (4.4)	4,636 (0.6)	4,900 (5.7)	4,680 (-4.9)	5,078 (8.5)
제조업	4,484 (5.8)	4,633 (3.3)	4,755 (2.6)	5,249 (0.2)	5,602 (6.7)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2.3)	7,188 (4.1)	7,687 (6.9)	8,135 (-12.5)	9,781 (20.2)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1.8)	4,297 (3.1)	4,431 (3.1)	5,222 (-2.0)	5,409 (3.6)
건설업	3,229 (4.0)	3,359 (4.0)	3,455 (2.9)	3,496 (2.2)	3,664 (4.8)
도매 및 소매업	3,773 (6.3)	3,921 (3.9)	4,031 (2.8)	4,381 (-1.2)	4,415 (0.8)
운수 및 창고업	4,040 (6.5)	4,185 (3.6)	4,326 (3.4)	4,975 (-5.7)	5,161 (3.7)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5.2)	2,097 (4.7)	2,134 (1.8)	2,184 (6.0)	2,178 (-0.3)
정보통신업	4,999 (4.2)	5,120 (2.4)	5,338 (4.2)	5,808 (2.0)	5,860 (0.9)
금융 및 보험업	7,324 (5.2)	7,338 (0.2)	7,443 (1.4)	9,343 (0.8)	9,346 (0.0)
부동산업	3,086 (4.5)	3,117 (1.0)	3,165 (1.5)	3,266 (-2.8)	3,304 (1.2)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5.3)	5,464 (1.6)	5,646 (3.3)	6,473 (-1.3)	6,871 (6.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3.7)	2,687 (4.0)	2,787 (3.7)	2,926 (4.1)	3,021 (3.3)
교육서비스업	3,435 (2.4)	3,508 (2.1)	3,602 (2.7)	3,446 (0.6)	3,524 (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3.6)	3,132 (0.3)	3,218 (2.7)	3,269 (0.4)	3,362 (2.9)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2.8)	3,058 (-0.6)	3,111 (1.7)	3,305 (-5.6)	3,301 (-0.1)
협회 ·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2 (4.9)	3,009 (6.2)	3,126 (3.9)	3,206 (5.6)	3,363 (4.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0시간 증가(근로일수 1일 증가)

○ 2024년 12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시간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65.6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7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6.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0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이 컸음. 특히 정보통신업(4.6%), 금융 및 보험업(4.6%)에서 근로시

간 증가폭이 컸으며, 전기, 가스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감소(-2.7%)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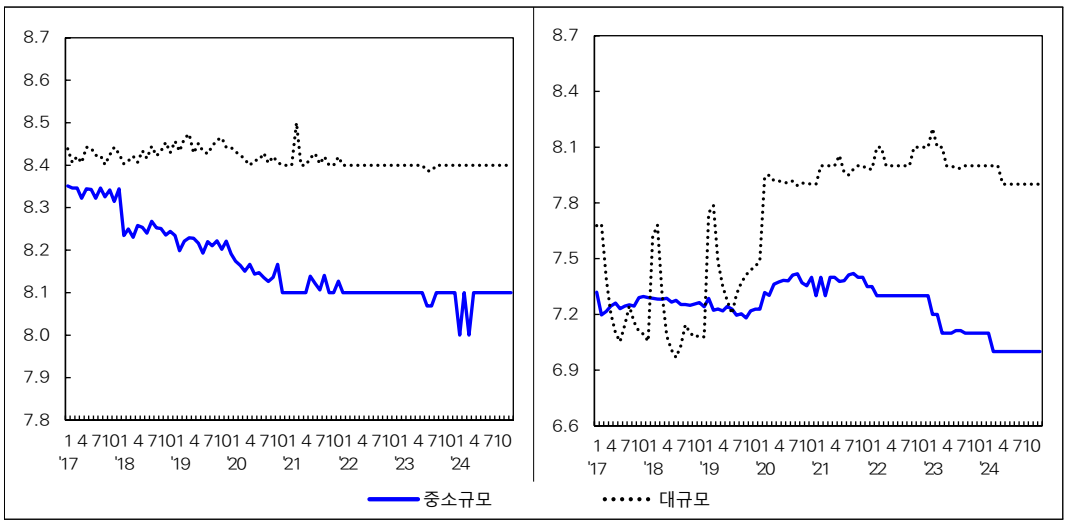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숙박 및 음식점업(-1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9%), 제조업(-9.1%) 부문에서 컸음.

◈ 2024년 12월 중소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

○ 2024년 12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57.1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60.9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9시간 증가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4	2023 12월	2024 12월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 (-1.2)	155.3 (-1.9)	153.9 (-0.9)	152.2 (-8.6)	157.1 (3.2)
	상용 총근로시간	165.9 (-1.1)	164.0 (-1.1)	163.0 (-0.6)	160.4 (-8.3)	166.3 (3.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 (-1.2)	156.7 (-0.9)	155.6 (-0.7)	153.0 (-8.6)	159.0 (3.9)
	상용 초과근로시간	7.7 (0.0)	7.3 (-5.2)	7.4 (1.4)	7.4 (-2.6)	7.3 (-1.4)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 (-1.0)	88.2 (-8.5)	84.3 (-4.4)	88.5 (-9.7)	84.4 (-4.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 (-1.2)	160.5 (0.1)	159.4 (-0.7)	156.0 (-6.6)	160.9 (3.1)
	상용 총근로시간	161.7 (-1.0)	162.1 (0.2)	161.3 (-0.5)	157.5 (-6.5)	162.7 (3.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 (-1.1)	150.9 (0.2)	149.8 (-0.7)	146.5 (-7.3)	152.0 (3.8)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 (-0.9)	11.2 (1.8)	11.4 (1.8)	11.0 (5.8)	10.7 (-2.7)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 (-2.3)	117.5 (-5.9)	111.9 (-4.7)	115.9 (-8.0)	113.1 (-2.4)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2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

○ 2024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7%), 정보통신업(4.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1%) 등이었음.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3.6시간), 제조업(172.9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1.9시간)이었음.

◈ 2024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대비 1.3시간 감소(근로일수 0.2일 감소)

○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162.7시간, 86.0시간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증소규모·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각각 153.9시간, 159.4시간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4	2023	2024
				12월	12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4.9(-0.8)	152.8(-8.3)	157.8(3.3)
광업	174.8(-2.8)	168.5(-3.6)	169.9(0.8)	168.5(-7.3)	173.6(3.0)
제조업	171.1(-1.4)	170.5(-0.4)	169.7(-0.5)	167.1(-7.3)	172.9(3.5)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0.9)	156.6(-2.1)	161.0(-3.2)	156.2(-3.0)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69.2(-0.5)	168.0(-8.3)	171.4(2.0)
건설업	134.3(-1.2)	128.7(-4.2)	127.7(-0.8)	127.2(-8.6)	131.9(3.7)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57.8(-0.9)	155.0(-9.1)	160.3(3.4)
운수 및 창고업	160.6(0.2)	160.6(0.0)	159.5(-0.7)	158.4(-6.2)	161.7(2.1)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6.6(-1.6)	138.0(-8.7)	138.0(0.0)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61.8(-0.2)	156.7(-7.5)	163.6(4.4)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57.7(-1.0)	152.4(-9.8)	159.6(4.7)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6.3(-0.7)	165.5(-6.9)	168.9(2.1)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57.5(-0.8)	152.8(-9.0)	159.1(4.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7.5(-0.4)	155.5(-7.4)	160.0(2.9)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4.1(-1.3)	131.7(-8.6)	136.2(3.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48.3(-1.6)	147.9(-9.6)	152.7(3.2)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45.7(-1.7)	142.9(-8.2)	144.1(0.8)
협회 ·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0.0)	159.5(-0.5)	158.3(-6.9)	163.9(3.5)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5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3건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5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2025년 2월 조정성립률 100.0%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0%보다 50.0%p 높은 수치임.

〈표 1〉 2024년, 2025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5. 2.	3	4	2	1	1	0	0	0	0	2	1	100.0%
2024. 2.	5	2	1	0	1	1	0	1	0	0	5	5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5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2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4년, 2025년 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5. 2.	0	0	0	0	0	0
2024. 2.	1	1	1	0	0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5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72건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03건)보다 31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8.8%(3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1.2%(155건)를 차지함.

〈표 3〉 2024년, 2025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5. 2.	172	191	28	8	97	2	39	17	709
2024. 2.	203	172	38	5	92	4	17	16	55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5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1] 건수는 1건

-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3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3건)를 차지함.

〈표 4〉 2024년, 2025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5. 2.	1	3	0	0	3	0	0	0	4
2024. 2.	3	2	1	0	0	1	0	0	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홈플러스 노사, 2025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

- 2월 25일 홈플러스는 교섭 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및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평균 1.2% 인상 △현장 경력 수당 신설 등임.
- 근무 경력에 따라 현장 경력 수당이 지급되며, 기본 2,500원에서 시작해 매년 2,500원씩 가산됨.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에게는 고정급으로 지급됨.
-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임금 인상분은 3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의 소급분도 함께 지급됨.

◈ 삼성전자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2025년 3월 5일 삼성전자 노사의 2023~2025년 임금·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이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찬반투표에서 가결됐음.
- 전삼노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 2023~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3만 1,243명 중 2만 2,132명(투표율 70.8%)이 참여해 찬성 1만 9,412표(87.7%), 반대 2,720표(12.3%)로 가결됐다고 밝혔음.
-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0%, 평균 성과 인상률 2.1% 등 임금 총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삼성전자 자사주 30주 △조합원 조합활동 8시간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 제도화 △성과급 제도 개선 노사공동 TF 등이 담겼음.
-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
- 노사는 지난해 2023·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창사 이래 첫 총파업까지 발생했음.
- 파업 종료 후 노사는 집중교섭을 통해 지난해 11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전삼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음.

◈ 방송업 노조가입률 최근 4년간 약 12%p 감소

- 2월 1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노조가입률 현황과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표했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 4개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산업·직업에 따른 노조가입률을 산출했음.
- 2023년 기준 노조가입률 상위 산업(중분류)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65.31%로 가장 높았음.

- 노동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업종은 보험업(57.8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56.25%), 우편 및 통신업(55.32%)이었음.
- 반면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04%)이었고, 가구 제조업(1.27%), 음식점 및 주점업(1.95%), 사회복지 서비스업(2%) 순이었음.
- 최근 4년간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중분류)은 방송업으로 2020년 46.68%에서 2023년 34.89%로 11.79%포인트 감소했음.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9.46%에서 4.08%로 5.38%포인트 감소했고, 금융업은 44.02%에서 38.35%로 5.67%포인트 감소했음.
- 직업별로 보면 노조가입률 증가폭이 가장 큰 직업(중분류)은 경찰,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으로 4년간 18.79%포인트 증가했음.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조작직(31%→44.5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2.08%→12.2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23.76%→33.11%)이 뒤를 이었음.
- 감소폭이 큰 직업은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11.07%→4.86%), 금융 사무직(52.94%→47.3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12.77%→7.70%),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15.52%→11.92%)으로 나타났음.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

-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음.
-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로 산재 장애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임.
-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 및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 원 내에서 빌릴 수 있음.
-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때는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음.

◈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기준 상향

- 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임.
-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 4,334명)의 51.4%(8만 4,511명)를 고령 운전자가 몰고 있음.
-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종사자가 되려면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시기를 놓치는 등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못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이번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거나, 사고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 판정이 나오면 운전업무가 제한됨.
- 의료적정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기존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중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경우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가능하도록 변경됨.
- 또한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복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회차 검사부터는 재검사를 제한하는 기간을 30일로 연장함.
- 앞으로 의료적정검사 8개 항목 중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등 4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되고, 또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됨.

◈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 추진

-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음.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지난해 전체 사망자(207명) 가운데 51.2%(106명)가 추락사고로 숨졌음.
- 우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음.

-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임.
-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하기로 함.
- 중소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도 1,500개사에서 2천 개사로 확대하고, 50명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함.
-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명단 공개도 다시 추진하기로 함. 앞서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명단을 공개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중단했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임.
-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을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함.

◈ 1인 가구, 20년 전보다 '사회적 빈곤' 더 심해져

- 2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음.
- 연구진은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 정도를 분석했음.
- 연구진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개 문항을 정하고, '박탈점수'(10점 만점)를 측정했음.
- 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 정도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배제는 1인 가구에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 '경제적 박탈' 영역의 점수를 보면 전체 가구는 1.13점에서 0.96점으로 0.17점 감소했고, 1인 가구는 1.75점에서 1.72점으로 0.03점 줄었음.
- '사회적 배제' 영역의 점수는 전체 가구에서 1.52점에서 1.47점으로 0.05점 낮아지며 소폭 개선됐으나, 1인 가구는 2.61점에서 2.83점으로 0.22점 증가했음.
- 연구진은 "1인 가구의 관계 단절과 고립이 더 심화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음.
- '사회적 배제' 영역에서 가구를 세분화하면 노인 단독가구, 한부모·미성년자녀가구, 비노인 단독가구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의 사회적 배제 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2003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32.8%로 늘었음.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는 2023년 35.5%임.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경제적 빈곤의 절대적 수준도 높았음.

- 연구진은 '처분가능소득이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상태'를 빈곤한 것으로 규정해 빈곤율을 계산했음.
- 그 결과 1인 가구 빈곤율은 2021년 기준 41.4%로, 전체 가구 13.7%의 3배 수준이었음. 2003년과 비교해 2인 가구 빈곤율은 34.8%에서 21.3%로 줄었으나, 1인 가구는 47.3%에서 5.9%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음.
- 연구진은 또 상대소득 빈곤율, 주관적 빈곤인식률, 박탈의 평균 점수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니 1인 가구 유형 중 노인 단독가구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 직장인 74% "해고 요건 강화해야"

- 2월 16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밝혔음.
- 한국 사회가 해고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음.
-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 원 미만(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80% 이상(81.3%)이 인지하고 있었음.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60%대에 그쳤음.

◈ 직장내 괴롭힘 신고 12.4%만 인정

- 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2,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
- 2020년 5,823건에서 2021년 7,774건, 2022년 8,061건, 2023년 1만 1,38건, 2024년 1만 2,2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나타났음.
- 반면 '법 위반 없음',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60.9%(7,161건)에 달했음. 신고 취하도 26.5%(3,132건)였음.

◈ 직장인 61%, 여성 직장인 76% “직장 내 승진 · 배치 차별 있다”

- 3월 2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 · 배치 차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은 승진 ·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격차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76.5%로 남성(48.6%)보다 27.9%포인트 높았음.
- 여성 비정규직의 81.3%가 승진 · 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해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장에서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1위로 꼽은 응답은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57.1%)였고, ‘임신 · 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이 그 뒤를 이었음.
- 직장인들에게 한국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 물은 결과,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국회(46.8점)로 나타났음.
- 그다음은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 · 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 가정(61.4점) 순이었음.
- 직장 내 성평등 점수는 여성(43.9점), 비정규직(47.5점), 일반사원급(48점), 150만 원 미만(44.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직장에 매긴 성평등 점수는 42.5점으로 정규직 남성(57.5점)보다 15점 낮았음.
- 직장갑질119는 “성차별이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과 같은 노동조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